수익성 회복 나선 철강업계… 조선·車업계와 신경전 예고

철강업계, 경기악화로 실적 부진
상반기부터 본격 가격인상 예상
포스코·현대, 열연제품 5만원↑

조선업계, 강판가격 인상 부담커
車 업계도 가격 인하 주장 가능성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2고로에서 출선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은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선다. 다만 올해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 침체된 업황으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77조1270억원, 영업이익 3조5310억원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9%, 27.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8460억원으로 48.2% 줄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25조9148억원, 영업이익 8073억원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5.2%, 50.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6.7% 줄어든 4496억원을 올렸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7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 증가한 1조1226억원이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1일 기존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스틸 포 그린'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삼고 철근·형강·후판 등 열연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실적 부진은 시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과 일본 등 수입산 철강재 유입으로 생산비용이 늘었지만 제때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체들은 국내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데다 전 세계 철강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내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어 올해 상반기도 상황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값과 생산비용 증가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반기부터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포스코는 열연 제품에 대해 1월 계약분부터 톤당 5만원 인상을 결정했고, 2월엔 유통향 열연 제품 가격도 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열연과 함께 후판에 대해서도 톤당 5만원 인상을 통보했고, 2월에도 열연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H형강과 일반형강 가격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동차업체와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조선업체와의 후판 협상은 제조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봉형강의 경우 건설 투자 위축으로 인해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부 주도의 건설 대응책이 나오는 등 시장 반전 및 시황 호조를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선업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선박의 건조·인도에 나서며 실적 개선을 예고한 만큼 가격 협상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동차 업계는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판 가격 인상에 부담이 크다. 강판 가격 인상에 따라 수익 유지를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는 철강업계가 최근 3년 동안 가격을 인상한 만큼 가격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생산에 집중한다. 광양제철소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에선 연간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올해는 30만톤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및 고급가전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모터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북미 지역에 전기강판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유럽 해상풍력 신재생프로젝트(PJT)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신전기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확보 및 미래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소재기술에 선제 대응한다.

동국제강그룹은 '스틸 포 그린'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삼고 친환경 전기로 조업을 바탕으로 철근·형강·후판 등 열연철강제품 생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8688억 규모 美 LA전동차 수주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낙찰
2028년 올림픽·패럴림픽 수요 대응

현대로템 미국법인이 현지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6일 현대로템 미국법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에서 발주한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8688억원(6억 6369만 달러)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운용 중인 현지 노후 전동차를 대체하고 2028년에 개최될 LA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급증할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됐다. LACMTA는 차량 제작사 선정 시 저품질 차량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과 실적, 품질, 기술 등 가격 외 평가 항목에 비중을 뒀다.

현대로템이 납품할 미국 LA 메트로 전동차 조감도.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차량 제작 기술 및 실적과 납기 준수 등의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과 2018년에 같은 북미 지역에서 수주한 캐나다 밴쿠버 무인 전동차 공급 사업에 차량을 조기 납품하는 등 운행 일정을 앞당겨 공로를 인정 받았다.

LA에 투입될 전동차는 2량 1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련(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 운행이 가능하며 1량당 최대 탑승 정원은 245명이다. 운행 최고속도는 113km/h으로 LA 다운타운~할리우드 북부 구간(26.4km)을 운행하는 B(적색)라인과 LA 다운타운~코리아타운 구간(10.3km)을 운행하는 D(보라색) 라인에 투입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다수의 미국 현지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동차를 납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 30%이상 확대"

SK하이닉스,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리·주석, 플라스틱 포장재 교체

SK하이닉스가 재활용 소재 활용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제품 생산에 재활용 및 재생가능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재활용 및 재생가능 소재는 폐기물이나 제품에서 재가공하거나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소재를 의미한다.

SK하이닉스는 로드맵을 통해 생산 제품 중 재활용 소재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30%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SK하이닉스는 필수 소재인 구리와 주석 등 금속 소재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도 재활용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금속 소재는 반도체에서 비중이 크고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순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로드맵 달성을 위한 이행 체제도 정비했다. 직접 구매하는 재활용 소재에 대해 인증 절차와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협력사가 납품하는 부품 소재도 품질 평가서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ISO 14021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검증 및 인증에 협력사들도 동참하도록 소통하고 지원도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재활용 소재 비중 확대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

퓨처엠 지붕에 태양광 설치… 포스코인터, RE100 대응 속도

광양 양극재 공장서 설비 준공식
연간 2.6GWh 재생에너지 생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이 손잡고 배터리 소재 사업의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6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공장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붕 태양광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 확대를 시도하는 첫번째 협력 프로젝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2.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 포스코퓨처엠은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RE100을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스코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합병하며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출범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친환경 미래소재 전문기업 포스코퓨처엠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양사는 포항에 있는 양극재 공장,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重, 고부가 LNG 운반선 4.6조 잭팟

중동지역 선주와 15척 건조계약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하며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트렸다.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선주와 17만4000㎥급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4조5716억원이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수주액으로 지난해 7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 계약금액인 3조9593억원을 뛰어넘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2028년 10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를 철저히 비공개했지만 업계에서는 카타르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17척, 3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83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수주 잔고(남은 건조량)가 90여척에 달해 안정적인 실적을 위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